

2025 새해 이렇게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원 발행 민생회복·취약계층 지원에 주력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만전·청년 임대주택 200호 공급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과 시민 행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새해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나누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을 화두로 삼아 지역 민생 안정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목표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장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난 연말 지역사랑 상품권 127억 원을 발행하는 등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에도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엄중한 시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생 대책반을 운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여수시의 선제 대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장은 “여수 경제에 가장 큰 대변역할을 해왔던 여수국가산단이 글로벌·구조적 문제 등으로 6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 골목 상권도 얼어붙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여수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행정지원단’이 산단 경쟁력 강화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전남도와 지역정착권 등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여수국가산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금융·재정지원과 조세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은 물론 향후 전기료 인하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천일반산단과 여수국가산단 재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동자 복합문화센터

와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시장은 “지난해 착공한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정부 주도의 지역 활성화 투자 기금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에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다. 행사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 만큼 기존보다 428억원 늘어난 676억원의 사업비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도시숲을 박람회장 주행사장 일대에 조성, 섬박람회 이후에도 힐링 공간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박람회 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와 섬 테마존 등도 설치한다.

정시장은 “박람회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주민 소득 창출이 이뤄지고 지역산업을 연계해 장기적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잡은 여수시를 K-관광의 거점,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재

도약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1세부터 18세까지 연차적 출생수당 지급,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17호를 시작으로 추진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올해 25호를 제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00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통과와 돌산 신북-우두로 이어지는 국도 17호선 도로 확장, 울촌지구 택지개발 계획·실시계획 시작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본격 나선다.

정시장은 “어려운 시기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지난해보다 304억원 증가한 76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동력을 마련했다”며 “실제 1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무술복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경로당 순회 한파 대비 주민 건강교실 운영

다음달 7일까지 30곳 방문

혈압·혈당 등 검사, 투약 지도

곡성군이 지난 6일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곡성읍 권역 30개소의 경로당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건강교실을 지난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사진〉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강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인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의 한파 관련 질환들을 알아보고 질환별 예방수칙 및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간호사 3~4명의 방문보건팀 전담인력을 구성했다.

이들 전담인력은 한파 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혈압·혈당·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 건강상담과 투약 지도를 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노인들은 자율신경계 기능이나 혈관의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추울 때 혈관을 수축하여 열



손실을 감소시키는 보상반응이 낮아 외출 시 보온을 위하여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가급적 수시로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예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의 문의 사항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1-360-8963) 및 해당 면 보건지소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구례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농업인 50% 가격에 이용

구례군이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기로 했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시행한 이후 매년 농기계 활용도가 약 20% 정도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결정 됐다.

또한 농기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관

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를 50% 감면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감면 조치에 따라 1일 임대 기준 트랙터(50Hp)는 10만원에서 5만원, 콤팩트 21만원에서 10만 5000원, 잔가지 파쇄기 3만4000원에서 1만7000이던 임대 가능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조치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임대 농기계 활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읍이 새해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를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

보성읍, 15일까지 새해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

불편 사항·의견 듣는 소통의 시간

보성읍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새해맞이 마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새해를 맞아 보성읍장과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의견 등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보성읍은 7일 부평 2동 마을을 시작으로 하루에 5곳씩 33개 대표 마을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읍 부평2동 황금출 동장은 “새해를 맞아 마

을회관에서 읍장님의 세배를 직접 받으니 마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새해에는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민생현장 소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읍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상생하는 현장 행정에 집중하며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4949명 참여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국비 등 188억원 투입

고흥군이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신청자는 총 5082명으로, 기준 미달자와 포기자를 제외한 4949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전년보다 국비 30억원 증가한 169억원과 군비 18억원을 투입했다.

고흥군은 안전을 고려해 오는 10일까지 3개 수행기관에서 워크숍을 활용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한 뒤 13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다양한 일자리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대가치 없는 노인일자리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장애인체육회가 2024년 전남 시군장애인체육회 성과평가에서 도내 17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순천장애인체육회, 전남 성과평가 2년연속 1위

9000여만원 기금·도비 지원

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2024년 전남 시군장애인체육회 성과평가에서 17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30점), 지도자교실(30점), 현장평가(20점), 행정노력(15점), 정책반영평가(5점)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순천시장애인체육회는 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순천은 지난 2023년 성과평가 1위에 이

어 2024년 1위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지원에 앞장서는 모범 장애인체육회로 인정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교실 및 동호인 공모사업을 통해 순천시장애인단체 20여곳에 총 9000여 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주 15회(총 90건)의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교실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모사업 및 지도자 교실 수업 현장 실사 평가와 반다비체육관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노력도 2년 연속 대상에 차지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광양건축사회와...초등 4~6학년 대상

광양시와 광양지역건축사회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는 지역의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건축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 건축학교는 광양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선정해 매월 1회(방학 기간 제외)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모형 만들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 학교에서는 어린이 건축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